

## 아르헨티나에서 가스·유전층 발견

### 東原 올 하반기 천연가스 본격 생산

(株)東原이 아르헨티나 육상 유전인 산타빅토리아에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발견했다.

東原은 작년 5월부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쪽 1천 4백50km에 위치한 산타빅토리아 유전에서 탐사정을 시추한 결과 천연가스 1조입방피트와 원유 5천만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유전층을 찾아냈고 지난 1월20일 발표했다.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견한 가스층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현지 판매가를 기준으로 20억달러 상단에 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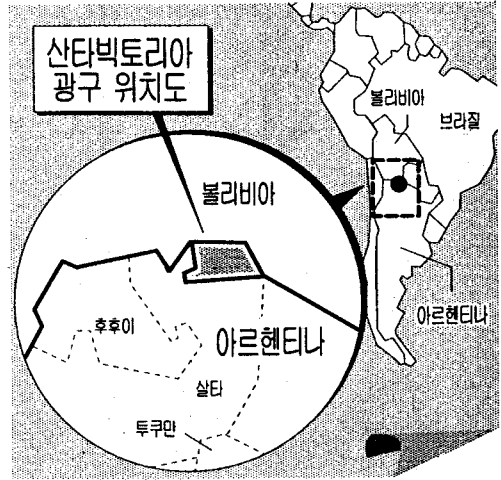
특히 이번에 함께 발견된 원유는 콘덴세이트로 불리는 고품질원유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동원관계자는 밝혔다.

동원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하루 2천 2백만 배럴의 천연가스를 본격 생산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 모두 4개의 개발정 및 평가정을 추가로 뚫기로 했다.

또한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해선 물리탐사와 함께 탐사시추도 계속하기로 했다.

동원은 이번 발견한 가스층만 따져도 앞으로 1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원은 지난 93년부터 약 1백만달러를 투자, 아르헨티



나 현지업체인 CGC社와 50대 50의 지분으로 산타빅토리아 광구를 중심으로 원유 및 가스개발사업을 벌여왔다. ㉔

## 탄광업체 폐광개발사업 적극 참여

### 리조트·레저타운등 조성 추진

강원지역 탄광업체들이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폐광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선군 사북면에 1,100만평 규모의 광구를 갖고 있는 동원탄좌(회장 李然)는 이 일대 170만평에 2010년까지 호텔 카지노 스키장등을 갖춘 사북리조트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예비사업계

획서를 정선군에 제출한 동원은 총 3,500억원을 투자, 1단계로 96년부터 5년간 2,000평 규모의 카지노장을 갖춘 호텔 및 콘도 골프장을 우선 조성한뒤 3단계에 걸쳐 하이테크파크 스키장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동원탄좌 方顯基 기획실장은 「4월께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확정, 정선군등 관계기관에 사업참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삼천리그룹 산하인 삼탄(사장

許碩)도 정선군 고한읍을 중심으로 함백산일대에 카지노머신 70~100대를 갖춘 호텔과 유희시설등 종합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탄은 또 현재 사용중인 탄광은 석탄역사촌으로 보존하고 레저타운은 함백산 정상부근에 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삼탄은 카지노의 경우 게임비용을 최소화해 오락형게임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㉔

## 국내업체 알제리에서 油田 발견

### 매장량 수천만배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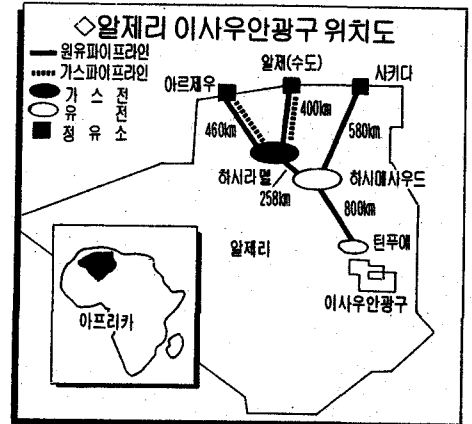
국내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알제리에서 양질의 유전발견에 성공했다.

지난 1월 통상산업부와 업체에 따르면三星물산과 한화에너지는 최근 알제리 남동부 지역에서 유럽 업체들과 공동으로 탐사작업을 벌인끝에 수천만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油田을 발견했다.

스페인의 렉솔社등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 총 4천 1백22

만 달러를 들여 개발에 들어가는 이번 석유탐사 프로젝트에서 삼성물산과 한화에너지는 각각 20%와 10%등 모두 30%(1천 5백36만9천달러)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으며, 올해말부터 개발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알제리의 불안한 정정이 우려되지만 원유생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㉔



## 국내최초 에너지자급형 태양광건물 건립

### 삼성 건설기계연구소 올해 7월 완공

건물내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열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급형 건물」이 세워진다.

삼성건설은 오는 7월 경기 기흥에 완공될 지상 7층, 지하 4층 규모의 건설기계연구소에 삼성전자가 만든 1백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설치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를 건설자재와 일체화, 건물 외벽이나 유휴공간에 설치하고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건물내부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40W짜리 형광등 2천 5백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발전용량은 14만 6천kW에 달한다.

회사관계자는 「연구소의 모든 형광등은 태양광에서 전기를 얻게 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여름철 전력수요 절정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기존 발전방식과 달리 전력생산에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은 연료전지, 풍력발전등 신에너지시스템을 접합, 통합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한 그린빌딩과 그린공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건설은 이를 계기로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환경친화건물 및 주택건설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00년까지 건물내에 소비되는 에너지 전량을 자체 공급하는 에너지 자급형건물(제로 에너지 하우스)을 개발할 계획이다. ㉔

## 風力발전기 국내 개발 본격화

### 한국화이바 300kW급 시험 가동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개발을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풍해문제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열 연료전지등 다른 대체에너지보다 상업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풍력발전은 연평균 풍속이 초속 5m 정도면 가능해 국내에선 남·서해안 및 제주도과 대관령·진부령등의 고지대가 설치가능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는 바람을 맞는 날개, 회전력을 전달·조절하는 기어 및 제어장치, 회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발전기, 지지 철탑등 4개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종류는 날개축의 설치방향에 따라 수평형 및 수직형으로 대별된다. 날개축이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수평형이 수직형보다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발전효율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연구는 70년대 중반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돼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상용화보다는 도입 가능성 연구단계에 그쳤다.

75년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등에서 20여대를 제작, 설치했으나 모두 20kW급 이하

의 소형 시험용 제품 뿐이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고장나 철거되거나 정상가동이 안돼 현재 실제 운영중인 국내 제작 풍력발전기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이며,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KIER)의 관리 아래 제주도에서 가동중인 2백50, 1백kW급 각 1대 및 2대의 30kW급 풍력발전기는 모두 네덜란드·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그러나 올들어 한국화이바가 3백kW급 수직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한데 이어 한국그린에너지산업개발(주)이 역시 수평형과 수직형의 장점을 띤 독자적인 풍력발전기 개발을 진행하는등 실용화 가능한 규모의 풍력발전기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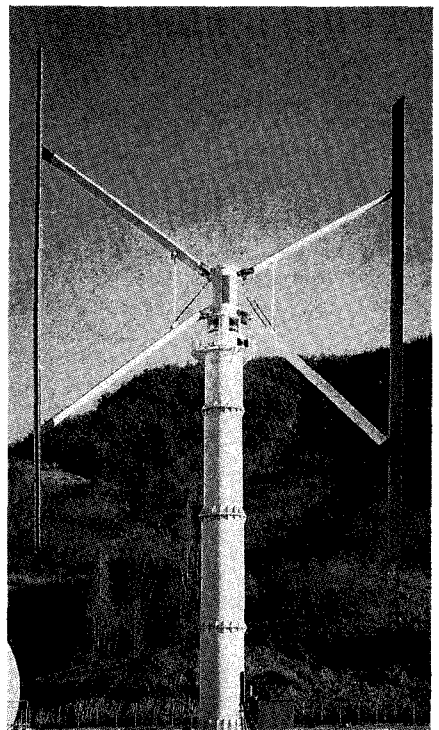
한국화이바가 개발한 풍력발전기는 지난 1월 전남 무안에 설치돼 내구성 및 성능시험에 들어갔다. 이는 3백가구에 전기를 공급할수 있는 용량이다.

연말까지 실증 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업생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그린에너지도 주요부품은 외국에서 들여올 예정이지만, 3백kW급 제품을 제작, 연내 거제도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제품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30여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해 그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연구소 차원으로는 KIER와 KIST가 내년부터 3백kW급 수평형제품의 국산화에 나설 계획이다.

KIER의 金建勳(신발전연구부)박사는「풍력발전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에선 각종 세제혜택등으로 총 1천 7백kW(94년기준)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며「풍력발전기의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용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㉔



## 波力發電 실용화 연구 마무리

### 97년 중반 파일럿 플랜트 설치

波力발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 한국 기계연구원의 60kW급 파력발전시스템 개발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였다.

4개년 계획으로 기계연구원이 한국전력과 총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과제는 현재 관련장치의 기초설계 및 특성실험등 밑그림이 완성된 상태이다.

기계연구원은 3차연도인 올해 제작설계를 마치고 97년중반에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2000년 이전까지는 파력발전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력발전은 바닷물결(波浪)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으로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조력발전과 구별된다.

파랑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연구 개발되어 있으나 진동수주(OWC)-공기터빈방식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진동수주형은 발전장치가 해저에 고정되어 작동하는 형태인 고정식과 해상에 계류돼 떠있는 형태의 부유식으로 나뉜다.

이 방식 핵심장치의 하나는 공기체임버이다. 밀이 터진 형태의 구조물인 공기체임버는 파랑의 운동 및 위치에너지를 공기유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기체임버는 한방향의 파랑에만 효과적인 장벽식과 파랑의 진행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효

율을 유지할 수 있는 실린더형태의 원형 주사체형등이 있다.

공기체임버를 적정선까지 바닷물속에 담귀놓으면 파랑의 상하운동에 따라 체임버내의 공기압이 변하면서 상부에 설치된 관내로 공기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데 이공기의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이다.

파력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안의 파랑에너지가 비교적 높은 구미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의 경우 이미 실용화되어 있으며, 영국은 ART社가 개발한 고정식 2MW급 「Osprey」를 선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JAMSTEC에서 개발중인 부유식 5백40kW급 「Mighty Whale」을 97년중 시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등 파력발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기체임버형태를 원형 실린더형으로 정하고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를 개발중인 기계연구원은 이제까지 관련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이론해석프로그램과 이에 의한 최적화기법을 개발했다. 모형실험을 통한 성능평가법도 완성했다.

또 계류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 상세설계를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터빈주위의 공기유동에 대한 정밀해석법과 발전 및 송전시스템에 대한 기초설계작업등 모든 터덕이작업을 마무리했다.

기계연구원은 올해안으로 실

제 제작설계를 완성한 후 시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기계연구원이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로 제시한 공기체임버는 내부직경 10m, 외부직경 13m, 높이 13.5m 크기이며 최적흡수(물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는 7.5m, 총중량은 4백16t이다.

계류시스템은 8점 계류방식을, 그리고 공기터빈은 보수유지가 쉽고 파랑이 미미할 때에도 운전효율을 높일수 있게끔 2개의 세트를 수평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기계연구원은 이 장치를 내년 중반에 평균파고가 0.7m 정도인 울산 주전앞바다 2km지점에 설치하여 최종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기계연구원 해양공학연구센터의 홍錫原박사(해양기술연구부·응용역학)는 「파력발전은 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1.5배정도 비싸고 관련장치의 보수유지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청정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박사는 또 「파력발전은 도서지방은 물론 앞으로 본격 개발될 해저시설에 대한 전기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유구조물은 방파제 역할도 해내는데 효율성이 다양하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관련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에 보다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㉔

# 자원 寶庫 해저개발사업 추진 본격화

## 차세대 심해저 개발 프로젝트 발표

인류의 마지막 寶庫「심해저」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 과학자들의 도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최근 정부 해양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 2006년까지 6백30억원을 투자, 「차세대 심해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세부내용을 과학기술처에 보고했다.

기계연구원은 심해저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개발하고 채굴 및 집광시스템 등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확보한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프론해역의 심해저 자원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전망이다.

크롬, 망간등 고급광물이 널려 있는 심해저 자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우선 6천m급 무인잠수정이 개발된다.

선상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조정기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무인잠수정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심해동굴 해구 등을 조사해 해저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2~3명이 탑승할 수 있는 3천m급 유인잠수정과 무인 심해저 로봇도 개발된다. 무인 심해저 로봇은 각종 채굴 장비들을 탑재, 실제 광물채굴등에 이용된다.

이밖에 심해저 자원개발을 지원할 모선(모선)을 개발하고, 수중용 통신장비와 심해저 탐사에 필요한 고집

적 채광시스템등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연구소, 석유개발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등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심해저 작업시스템개발 연구회를 구성하고, 기획결과를 분석·보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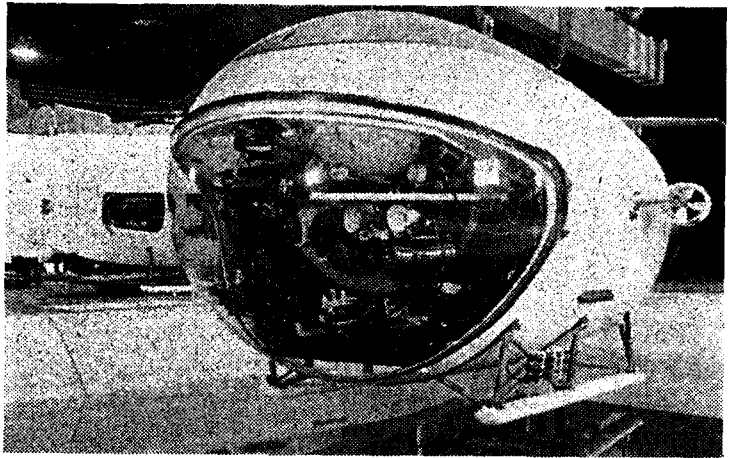
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홍錫原 해양기술연구부장은 「심해저 작업용 로봇개발은 해저자원 탐사를 위한 기초 기술을 습득한다는 측면외에도 극한 작업에 필요한 공학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도 심해저 개발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이 러시아 극동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저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한 뒤 분해되는 원격 무인해중로봇을 개발중이며, 한국통신도 수심 2천m에 설치된 해저광케이블 유지 보수용 무인해저 잠수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옥포946」으로 명명된 해중로봇을 오는 4월쯤 태평양의 심해저 탐사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㉔



## 通産部, 경쟁력 갖춘 탄광 선별지원

통상산업부는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석탄산업 구조조정 사업에 예외를 인정, 경쟁력을 갖춘 탄광에 대해서는 석탄가격 및 장비구입 보조등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할 방침이라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기존의 석탄산업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 업계의 자생력을 확보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8년 3백47개 탄광이 연간 2천4백만톤을 생산한 석탄산업은 그동안의 구조 조정작업으로 현재 11개 탄광 연산 6백만톤 규모로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㉕

## 남해안지역 太陽熱이용 가능성 적합

### 直達 일사량 경남 진주 최고

한국의 직달일사량(구름등에 부딪쳐 흩어지지 않고 직접 내리쬐는 햇볕)이 태양에너지 이용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보다 많아 남해안일대에서는 태양에너지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에서 햇볕(일사량)이 가장 많이 쬐는 도시는 경남 진주로 조사됐다.

통상산업부의 지원으로 지난 8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6개 도시에서 일사량을 측정해 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땅바닥에 도달하는 햇볕(수평면 전일사량)이 1㎡당 하루평균 3천1백Kcal로 위도가 비슷한 일본 중부지방의 3천50Kcal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진주가 1㎡당 하루 평균 3천3백69Kcal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 목포가 3천3백31Kcal로 그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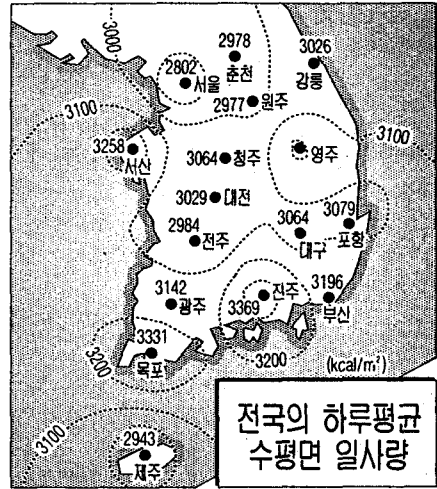
를 이었다.

직달일사량은 고온에너지가 필요한 태양열 발전 시설이나 태양열 냉난방 시설에 필수적이다.

지난 91년 5월부터 조사한 전국 16개 도시의 직달일사량은 청명한 날 기준으로 1㎡당 하루 평균 4천4백40Kcal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사막지대인 엘파소(평균 6천2백49Kcal)보다 30% 정도 적지만 보스턴(2천8백6Kcal), 뉴욕(2천5백83Kcal), 시애틀(2천4백28Kcal) 등 미국의 대도시 지역보다는 40% 정도 많은 것이다.

에너지기술연구소 孫永陸 소장은 「국내 일사량 자원이 태양열 이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 남해



안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㉔

## 2kW급 燃料電池 발전시스템 개발

### 용융탄산염형 세계 5번째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처음으로 2kW급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 2월 29일 발표했다.

韓電은 정부의 선도기술 개발 과제(G7)로 지난 93년부터 삼성중공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등과 총 39억원을 들여 공동개발에 착수한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 시험한 결과 2kW의 출력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방식을 개발하기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이다.

연료전지발전은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와 열을 얻는 직접발전 방식으로 기존의 화력발전과 달리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적은 무공해 발전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우주

선의 전원에서 열병합 발전설비 및 대규모 화력발전소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는 섭씨 6백50도의 고온스팀이 발생, 복합발전에 이용됨으로써 전기효율이 높고 연료로 천연가스나 메탄올 외에 석탄을 가스화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㉔

## 대성산업 텍사스 油田개발 참여

### 美社 공동 5개광구 시추작업

대성산업이 미국 텍사스 지역 유전개발 사업에 나선다.

지난 2월 14일 대성산업은 미국의 BAI社등과 텍사스주에 있는 밴드아치 및 웨스트텍사스 지역 5개 광구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이를 위해 최근 金壽根 그룹회장이 텍사스 현지에서 BAI社의 제임스 베스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 프로젝트를 전담할 합작법인「대렉스」를 설립했다.

대성이 최대지분(45%)으로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총면적 1백50만평에 매장량은 석유 4천만배럴, 천연가스 14억㎥ 규모이다.

이번 유전개발사업에는 총 4천2백만달러(약 3백30억원)가 투입되며 금년 3월 시추작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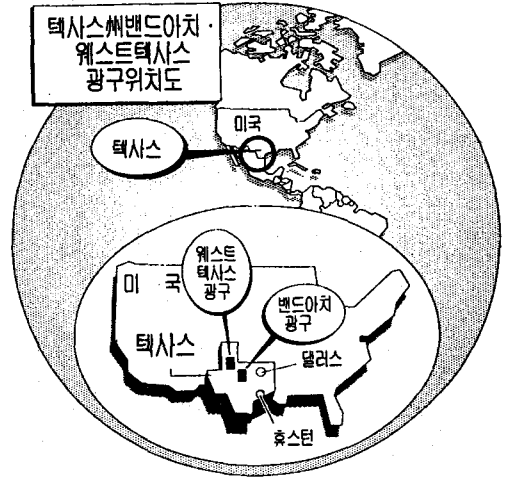
착수, 올해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는 현지 판매하고 석유는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康鍾秀 유전개발부 이사는 「유전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역이 석유 및 가스개발 관련

정보·기술의 메카인 美 텍사스 인만큼 물리탐사나 시추분야의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대성그룹은 지난 90년 리비아



유전개발에 참가한 것을 비롯 베트남 미국 오클라호마 지역 등지에서 현재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㉔

## 올해 에너지수요 7.3% 증가 예상

### 작년 9.2% 비해 1.9% 낮아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6일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작년 증가율 9.2%에 비해 1.9% 포인트 낮은 7.3%가 늘어 1억6천78만 석유환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력소비는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10.6%,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는 35.9%나 늘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무연탄은 지난해 대비 18.0% 감소해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0%에서 올해에는 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의 경우 산업 및 수송부문의 소비증가율이 낮아져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에

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7.4%(한국은행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인데,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지난 94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㉔

## 北 경수로 건설부지 新浦 잠정확정

### 5차조사단 3월 하순 파견 예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의 新浦지역이 경수로 건설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아래 신포시금호리지역중 해안으로부터 1.5km 떨어진 C지점을 경수로 건설부지로 확정할 방침이다.

경수로기획단은 지난 2월 24일 4차 부지조사단이 경수로건설 예정지인 신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함에 따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EDO는 또 조만간 원자로 터빈 제너레이터등 주요시설들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도로 및 배수로등 부지기반 조성작업을 위한 설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북한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강수량 기온변화등 지리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경수로 후보지인 新浦지역에 대한 부지조사를 마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예비조사를 위한 5차조사단을 3월 하순에 파견키로 했다.

지난 2월 27일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KEDO와의 계약에 따라 기후 및 환경영향평가, 해양조사, 부대 설비관련조사, 인문·사회환경조사 등을 위해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1개월안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KEDO는 이같은 예비조사단 파견과 별개로 러시아측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실무교섭과 함께 4차에 걸친 부지조사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차조사단은 지진반응조사, 단층 및 암반조사 등 부지 안정성조사를 비롯 해수심도측정, 부지측량 등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사과정에서 시추 및 물리탐사에 필요한 대형장비를 운송해 주고 북측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차량 선박 폭약연료등을 지원했다고 경수로기획단은 밝혔다. ㉔

## 통산부, 에너지절약사업 본격 추진

### 규제완화등 지역협력사업 확대

통산부는 신경제절약 5개년계획의 4차년도인 올해에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통산부의 「9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사업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시도와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협약등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올해 1백94개 에너지다소비업체에 총 3천6백72억원을 투자해 원단위를 2.1%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열병합발전소를 올해안에 7개소를 추가로 건설하며 산업체 에너지절약진단,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송부문의 에너지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확충, 경차보급 확대 유도등 승용차의 효율적 이용여건 개선, 공동집배송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전국 8개소

로 확대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집단에너지의 공급확대기반을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며, 지역난방 공급가구를 52만호에서 60만호로 확대하고, 아울러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수요관리 목표량을 65만1천TOE로 설정하고, 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업과 에너지다소비 수용가를 연결하는 「에너지절약마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㉕